

KADO, 정보격차 해소 위한 행보 본격화

MS · 송실대 · ITU 등과 잇따라 양해각서 체결 ... 지역정보교육센터 구축 등
3개년 계획 추진

글 신종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달 1일 한국MS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스티브 발머 MS 사장, 손영진 한국MS 사장.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원장 손연기)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달 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일에는 송실대와 23일에는 ITU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1일 정보통신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진흥원과 한국MS간의 양해각서 체결식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한중인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전국 주요 대학 및 복지관에 노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역정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에 국제 IT 협력팀을 파견하는 등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MS는 진흥원의 정보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무상지원, 현금 지원 등 올해 약 4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3개년 프로젝트로 추진될 이번 협력은 매년 규모가 변화 가능하지만 총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대제 장관은 이번 체결식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리더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자리매김을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늘어가고 있다”며 “금번 KADO와 MS의 협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앞으로 세계 속의 IT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국내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에 있어서도 리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앞서가는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펼쳐 나가는 UP(Unlimited Potential) 프로그램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IT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의 손연기 원장은 “국가적 현안 과제인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내외 민간기업이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달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송실대(총장 이중)와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 분야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국민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과 정보화교육 강사 지원단 활동,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중고PC 제공 및 보급 등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흥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도 공동으로 국가간 정보격차 측정 툴 개발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진흥원과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지난달 23일 ▲정보격차지수 개발 ▲개도국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례 연구 ▲부산 ‘ITU 텔레콤아시아 2004’ 행사 기간내 공동 워크숍 개최 ▲ITU와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